



## BLUE BOOK

학 과 건축학과

이 름 26.5

학 번 2007-11163

과 목 한국건축

날 째 2007. 4. 30

※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될 수 있습니다.

7 Pages

College of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 4.5

정착생활을 하기 위한  
신석기인들을.

1. 원시 건축은, 신석기 시대 농경의 시작으로 「옹집·토기」가 주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을 기본적인 생활의 필수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었다. 이를 넘어 기념비적인 건축이 바로 청동기 시대의 고인돌과 석olumn이다.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분짓기 해주는 요소로, 기본적 목적을 넘어서 상징의 건축적 표현이었다. 농경과 무기를 반영으로 고대에는 집단의 규모가 커지고 위계질서가 생겼다. 고대에는 "옥"이 있고 이를 보완해주는 "くん"이 주된 상위계층이다. 이들이 머무른 「도성」과 양이 죽은 후 기리기 위한 - 고인돌과 같은 - 기념비적인 「무덤」이 고대 건축의 큰 두 가지 풀자이다.

고구려의 예를 통해서 고대 건축의 형상과정을 볼 수 있다. 고구려 통일성왕이 지었다는 홀등관을 그 위치가 불분명하다. 그 농 지역에 있는 것으로 국내성이 있다. 이는 암록강 유역에 있는 것인데, 국내성과 환도성은, 각각 궁성과 산성으로 이어지는 예를 보여준다. 국내성에는 왕과 그를 보호해주는 군인만 살았으며 관제와 같은 유사시에는 산성으로 대피했다. 그 밖의 다른 주민들은 성 밖에서 살았다.

이후, 평양 주변의 암락강으로 옮긴다. 이 역시 이 성으로 산성과 산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이동체계는 고구려 시대까지 이어온 우리 고유의 도성체계이다. 또한 산성을 세운 산의 능선 (ridge)에 해당하고 단한 모는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 날을 계곡에 면하는 위치에 지었다.

이전에는 대동강과 보통강 사이에 위치하는 평양에 평양성을 짓는다. 이 성은 북성 - 궁성 - 내성 - 외성으로 (⑨) 이루어져 있다. 성 밖에 살던 주민들은

봉을 뿐 아니라 자연재자로 성 밖에도 유리한 곳이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고구려의 무덤은 주로 석실의 형태였다. (십자는 주로 양·각의 형태) 따라서 흥렬석의 경우 연도만 찾으면 되었기에 들꽃이 많았다. 그래서 냄새 것은 주로 프레스코화 기법의 벽화들이다. 장관석의 경우는 그대로 되어 있는 벽면의 파라이드 형태로 되어있다.

한편, 산간 건축의 경우, 고대 건축에서는 배수에서 기능학적인 안정성을 갖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삼았다. 그래서 1층 거공당식 → 1층 1공당을 가지 배수형태가 변화하게 된다.

2. ① (현상)  $\frac{1}{n}$  단위 공간의 정수

✓ : 각각의 기능을 가지는 실·관이 협생함,

하나의 기능에 하나의 것을. (한나의 건물을 지간을 넘지 않겠다)

- ② (고대) 단위 몇가지의 통합과 '학장'

47 운동 + 마루 → 의례적 전통

한국어 + 영어 → 한국어, 영어, 일본어

마루 + 부엌 → 주방장작 지로 : 산울마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 ③ (증시) 한국의 경제와 밀접

정연(정리방향), 칸수의 증가, (경제적 요구에 의함)

속면(분방형). 간수의 증가 → 짙침·양통침의

(구조 기능의 발달, 좋은 자료 사용, 으로 가능해짐)

이를 통해 다양한 지역성이 발달하는

- ## ④ (초연습) 한국의 민족

∴ 안방 - 마주 - 건넌방,의 형식이 자리잡음, 부엌은 안방에 둘둘되어 붙으

가자령 → ㄷ·ㅁ자령으로 토지의 징역적 이용

언제와 문간자로 구성된 (대개 언제가 언어의 차이로, 문간어 -자-성)

새로운 생산양식 (집장사, 자료의 구역화) 등장.

도사학의 발달과 현况 (기본유형 → 미분화 단계형 → 단계형 → 연립형 → 주제형)

- ⑤ (근현대) 만동주택과 아파트의 발달

도시화로 인해 농토권 고밀화 → 아파트의 밭재

마주 . 마땅히 나라지거나 대처하

부록 1. 동일한 품목에 대한 관세율과 관세제가 중원화세에 미치는 영향

L.D.I.C 떠밀을 도입하고 입수 부위(dry surface로 변화)를 통한 화장실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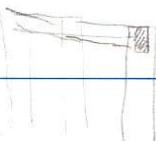


• (여자) 아파트의 투주 → 고급화로 어쩔 수 없는 놀남

그러나 **기사식 생활과** **온도** **사용을** **앞으로도** **유지될 것** → **이제** **맡는** **그들의** **환경에** **개방된다.**

서구적인 것과 반대되어, 한족이 한류 공간으로 자리잡은 가능성이 있다.

(10)



3. ①) 상방

: 기둥 머리를 이어주는 도리 방향의 부재, 대포형에는 그 위에 짹방이 놓이기도 한다

②) 주투 (柱 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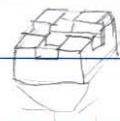
부녀치기 텁다.

1.5

서예학동에서 기둥의 두께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만 하늘 짐을 보안하기 위해

7~8

생긴 것으로 기둥의 두께나 모양에 관계없이 보·도리를 연결하여 지붕의 하중을 받아 기둥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두께수 1 보·도리가 까워지는 지점

두께의 손해

기둥머리보다 두께가

없어 사용할 수 있다

~~3) 암새기와~~

: 기와의 한 품으로 용어리를 구성하는 기와

4) 속녀

혹구포를 구성하는 부재 중에서 가장 긴 부재, 때에 따라서는 두 부재를 이어선으로 한다.



약간 높여져 있어야 함

~~5) 벽등~~

: 벽의 구멍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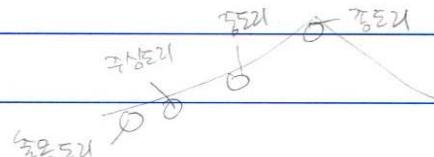
6) 이주법

: 원래의 기둥 위치에서 구조, 짹방으로 인해 기둥 위치를 옮기는 것.

이주법과 강조법 (기둥을 빼는 것)으로 구조와 막판을 동시에 제거한다. 이주를 한 후에는 구조적으로 보가 반드시 필요하며 강축을 담당하는 대량의 철강을 필요로 한다.

~~7) 주상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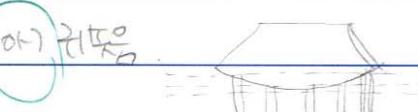
: 광포에 만재되는 도리



도리는 서까래를 받치는 구조부재, 서까래와 직각방향이다

8) 귀뜻음

: 지붕을 받치는 암자인 기둥이.



가운데 기둥 길이가 가장 짧고 양 끝으로 각주를

정자 그 길이를 갖게하는 것

4. 통일 신라 시대 사찰 건축의 변화는 크게 상당이 혁신되었고, 산지가감이

5 발생된 것을 들 수 있다.

① (1층 주중당식 → 1층 중당식) → 상당식으로 변화했고, 익장이 늘어났다.

1층 중당에 비해 탑의 육상이 많이 내려갔음을 의미하고, 익장은 영역을 구분하는 것으로 통일신라시대에 가장 유방했다. 대웅보전의 발달로 다양화 부처가 생기면서 그들 고유의 영역을 주고 이를 구애할 필요가 생겼다.

② 기하학적 완결성을 중시하고 삼층대에 비행, 비단장을 갖는다. 대웅보전의 영향으로 다양한 부처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사찰에 이를 그림의 고유한 영역을 공간을 분여나가는 식으로 주어 사찰을 구성한다.

③ 뿐만 아니라 토작신암과 결부하여 상단각, 쪽단각 등도 미들의 고유한 영역을 확보하여 더불어 나으로 구성한다. 고대의 기하학적 완결성을 사라졌다.

④ 경주에 밀집된 사찰은 경주를 벗어나 산지가감이 발생된다.

산지가감에서는 공간을 나누는 것이 지형의 고저차를 이용한 "단"을 영향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단'을 통해 각각의 영역을 확보하기도 한다.

⑤ 개인적·가족적인 민족에 의한 사찰이 전립된다.

권력자나 경제적으로 부유한 계층의 개인적 시주에 의한 사찰이 발생한다.

※ 제2장

05 종교를 이루는 부재.

사) 기단

→ 시공 중 상하는 것을 방지

목구조의 시공 과정에서 가장 나중에 시행하는 것. 주교와 누각을 예워서 강경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안정화하기 한다. 주로 틀을 사용한다.